

중동 라이벌 사우디와 이란에 대해 가장 궁금한 5가지

임정성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jsimm@posri.re.kr)

목차

1. 들어가는 말
2. 아랍인 vs. 페르시아인
3. 수니파 vs. 시아파
4. 절대왕정 vs. 이슬람공화국
5. 국방력과 경제력
6. 미래 국가전략
7. 맺음말

Executive Summary

- 최근 사우디와 이란 경쟁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데, 이 두 나라는 왜, 언제부터 철천지원수가 됐을까?
 - 중동지역은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엔진으로 부상할 전망으로,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실행 필요
- 사우디 국민은 셈족의 아랍인, 이란은 인도-유럽어족의 페르시아인
 - BC 550년 아케메네스제국 등 화려한 고대문명을 일구었던 페르시아인은 651년 미개했던 아랍 이슬람 세력에 의해 무력으로 굴복, 개종한 것에 자존심 훼손
- 사우디는 수니파 인구비중이 90%, 이란은 시아파 비중이 90%
 -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사망하자 공동체 지도자 선출 문제로 분파
 - 시아파 추대 후계자인 알리와 두 아들이 암살과 전투에서 사망하자 수니파에 원한
 - 사우디와 이란 간 오랜 반목, 최근의 시리아/예멘 내전, 레바논 정쟁은 교리차이 보다 정권(왕실), 성직자 집단 등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함
- 사우디는 1932년 건국 이후 절대왕정 체제를 유지, 이란은 1979년 왕정을 타도하고 이슬람 교리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실험적 '이슬람공화국' 체제 건설
 - 사우디와 이란 모두 최근 들어 체제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최고권력 이양으로 재도약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- 사우디는 국방예산이 이란의 9배 되지만 군인 수와 해군력, 실전경험은 취약
 - GDP 규모와 인당GDP는 사우디가 우월하지만, 최근 경제성장률과 재정적자 면에서는 이란이 더 양호. 특히 이란은 8,200만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불필요
- 사우디와 이란은 모두 역내 패권확보 위해 20년 장기계획을 실행 중이나 저유가와 외국인투자 유치, 정세급변 등으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
 - 사우디는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세계적 신도시 건설과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, 왕실 내 반발과 성직자 집단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
- 사우디와 이란은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산유국이지만 서로 다른 역사와 정치 사회적 특성이 있어 개별적 접근과 종교를 배제한 비즈니스 관점 이해 필요
 - 중동 1, 2위 시장인 사우디와 이란은 둘 다 잡아야 하는 중요시장이기 때문에 비교 이해를 통해 국가 특성에 맞고 이해충돌이 없는 사업전략을 수립해야 함

1. 들어가는 말

- 최근 사우디와 이란의 경쟁 기사가 국제면에 자주 등장하는데, 이 두 나라는 왜, 언제부터 철천지원수가 됐을까?
 - 단순히 사우디는 이슬람 수니파고 이란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양속관계가 되었나? 그런데 최근 같은 수니파인 카타르는 왜 사우디에 반기를 들었나?
 - 같은 알라신을 믿고 코란을 암송하며 매년 평균 6.4만명의 이란인에게 메카 성지순례를 허락하는 사우디는 왜 그렇게 이란을 두려워하는가?
- 사우디와 이란이 위치한 중동지역은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을 넘어 역사와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실행 필요

2. 아랍인 vs. 페르시아인

- 아라비아 반도에서 고대문명은 현재 예멘이 있는 남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, 사막지대인 중부와 서부에서는 유목민이 원시적인 생활을 함
 - 부족 간에 오아시스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과 약탈이 끊이지 않았으며, 이런 가운데 메카 같은 오아시스 도시들이 점차 발달
 - 7세기 초 무함마드는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교를 창시하여 설파했는데, 다신교를 믿는 메카인으로부터 박해가 심해지자 622년 메디나로 피신
 - 메디나에서 세력을 확대한 무함마드는 630년 메카를 정복하였고, 이후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고 이슬람교를 믿게 함
 - 무함마드 사후에도 이슬람 세력은 동쪽으로 인도, 서쪽으로 이베리아 반도, 남쪽으로 북아프리카까지 정복하고 이슬람교를 전파

[참고] 아랍(Arab) 개념

(자료: 두산백과)

- 본래 아라비아 반도 의미. 7~12세기 무렵까지 아랍인이 세운 아랍제국 지칭
- 오늘날에는 통상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을 통칭
- 이슬람교를 믿지만 아랍민족이 아닌 중동국가: 이란(페르시아), 터키(투르크)

□ 반면,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페르시아인은 BC 550년에 아케메네스 제국을 건설하는 등 찬란한 문명을 꽃피움

- 전성기 아케메네스 제국은 서아시아, 중앙아시아, 코카서스 지방, 터키, 아라비아 북부,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통치
- 그러나 651년 페르시아인은 4백년 이상 건재해온 사산왕조가 동로마 제국과의 오랜 전쟁으로 쇠퇴한 틈을 타 침략해온 아랍인에게 굴복하게 됨
 - 유일신 사상의 조로아스터교를 믿어온 페르시아인은 처음에는 개종을 거부했지만 세금 혜택 등에 의해 차츰 이슬람교로 개종
 - 아랍제국은 교육수준이 높았던 페르시아인을 행정관료로 채용하고, 고대부터 발달해온 수준 높은 정치 형태와 행정경험, 변방지역 통치술 등을 도입
- 페르시아인은 아랍세력 이후에도 셀주크 투르크, 오스만 투르크, 몽골, 티무르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지만, 문화를 발달시키며 민족성을 지켜옴
 - 1501년 설립된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에는 수도 이스파한(Isfahan)이 ‘세상의 절반’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찬란한 문화를 일구어냄
 - 현재 이란인 마음속에는 ‘언젠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’는 바람이 있으며, 무력으로 침략해온 미개했던 ‘아랍인’으로 불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함

〈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비교 - 지리/문화적 측면〉

	사우디아라비아	이란
위치	아라비아반도	서아시아
면적	2,150 천km ² (세계 14 위) (사막 98%, 경작지 2%)	1,648 천km ² (세계 19 위) (산악 50%, 경작지 25%, 사막 25%)
기후	고온건조 사막	건조 및 반건조, 카스피해 연안은 아열대
종족	셈족	인도-유럽어족
민족	아랍인(90%), 아프리카/아시아인(10%)	페르시아인(61%), 알제리인(16%), 쿠르드인(10%), 루르, 발로치, 아랍, 투르크멘, 투르크 등
언어	아랍어(공용어)	페르시아어(공용어, 53%), 터키어(18%), 쿠르드어(10%), 기타

자료: CIA World Factbook

3. 수니파 vs. 시아파

□ 무함마드가 632년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병사하자 지도자 선출 문제로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림

- 공동체 다수는 무함마드의 오른팔이자 장인인 아부 바크르를 칼리프(예언자의 대리인)로 추대
 - 일부는 무함마드 가문에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‘알리’를 추대했지만, 결국 1~3대 칼리프는 공동체에서 선출
- 알리는 마침내 공동체에서 4대 칼리프로 선출됐지만 암살되어 양 세력 간 갈등이 노골화
 - 더욱이 알리의 장남(하산)마저 독살당하고, 차남(후세인)도 수니파와의 전투에서 숨지면서 소수파는 다수파에 증오와 원한을 품게 됨
 - 이후 소수파는 아라비아반도 서부에서 쫓겨나 북쪽(시리아·이라크)과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, ‘분파’라는 뜻의 시아(Shia)로 불림

〈이슬람 수니파 vs. 시아파 비교〉

	수니(Sunni)파	시아(Shia)파
주요교리	순나(말과 행동)를 따르는 자	시아는 ‘분파’라는 뜻
차이점	공동체 합의 통해 칼리프 선출 (초대 칼리프로 아부 바크르 추대)	칼리프는 무함마드 가문에서 계승 주장 (초대 칼리프로 사위인 알리 추대)
분파	수니파는 별도 분파 없음	- 12 이맘파: 이란, 이라크, 바레인, 레바논 - 알라위파: 시리아
비중	세계 무슬림(약 16 억명)의 85~90%	10~15%

□ 한편, 12세기까지 맹위를 떨치던 이슬람 세력(사라센 제국)은 16세기 들어와 오스만 투르크(현재 터키)의 침략을 받아 오랜 지배를 당하게 되고, 19세기말부터 영국 제국주의 영향력도 커짐

- 사우디 건국의 아버지인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는 민족의식을 갖고 부족들을 병합하였고, 1913년 영국군의 지원으로 오스만 투르크를 격퇴
 - 이븐 사우드는 서부지역의 히자즈 왕국을 정복해 1926년 왕이 되었고, 중부지역의 나즈드 왕국과 통합하여 1932년 사우디 아라비아를 건국

- 이란은 1794년 건국된 카자르 왕조가 19세기말경에 약화되면서 1906년 입헌공화제를 도입했고, 1919년에는 영국과 보호조약을 체결
-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후 예상과 달리 시아파 영향력이 강해지자 중동지역을 시아와 수니파 간 대결구도로 도식화
 -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은 중동지역을 시아파 ‘초승달’과 수니파 ‘활’ 간 대결 구도로 규정하고, 조지 W. 부시 전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
 -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했지만, 인구의 65%인 시아파가 집권하도록 도와준 셈이 됨
 - 이라크 신정부가 이란정부와 밀접해지자 이란~이라크~시리아~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벨트를 형성했다며 경계
 -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, 레바논(헤즈볼라) 등에서 시아파 민병대를 조직, 훈련, 지원하고 있다며 테러지원국으로 분류
 - 헤즈볼라(시아파 종교조직이자 군대)는 연정 내각에 참여까지 한 합법적인 정당이며, 이스라엘과 미국만 테러단체로 규정(UN은 테러단체로 규정 안함)
 - 반면, 1980년대 이후 중동과 서아시아, 북아프리카에서 결성된 극단주의 세력은 대부분 수니파이며, 9.11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도 수니파
 - 알카에다, 탈레반, 하마스 등 극단적인 이슬람 보수세력들은 사우디의 건국 종교이념인 ‘와하비즘’을 사상적 근간으로 함
 - 사우디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알카에다는 2001년 미국 9.11 테러를 자행했으며, 체포된 19명 중 15명이 사우디 국적자

[참고] 와하비즘(Wahhabism)이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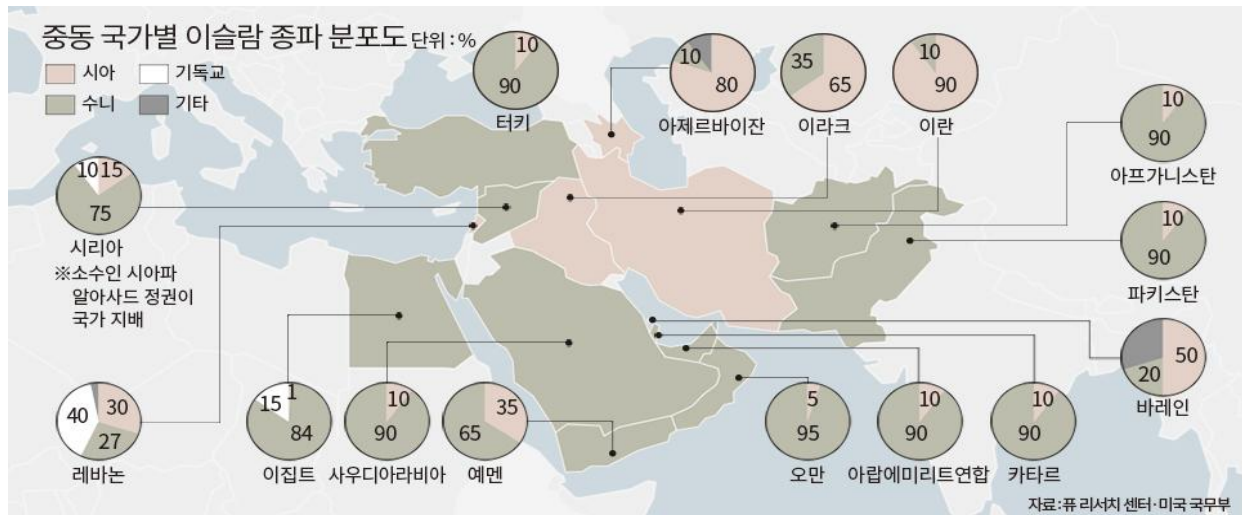
(자료: 두산백과)

- 18세기 중엽 아라비아반도에서 출현한 이슬람 복고주의 운동이자 사회·정치 운동. 오늘날 사우디 건국이념의 기초이자, 근대 이슬람 부흥운동의 효시

-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, 레바논 정쟁을 흔히들 수니와 시아 간 종파 경쟁으로 규정하지만 사실은 각국에서 전개된 기득권을 향한 권력투쟁 성격이 강함
 - 정권(왕실) 유지와 성직자 집단의 기득권 유지 등 ‘정치적 이득’을 위해 종파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강하며,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

- 일부 학자는 오스만 투르크의 몰락과 아랍 민족주의 쇠퇴기에 ‘反세속주의’를 기치로 수니와 시아파 간 연합이 이루어졌었다고 주장하는데, 이처럼 더 큰 상위 목표가 있으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정도의 교리 차이
- 최근 들어 카타르(해상 가스전 개발)와 터키(쿠르드족 독립 저지)는 수니파 국가지만 경제적/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 중

〈중동 국가별 이슬람 종파 분포도〉



자료: 조선일보(2016.1.5)

4. 절대왕정 vs. 이슬람공화국

- 사우디는 1970년대 왕실 내 암살과 쿠데타 등 위기를 겪은 적도 있지만, 풍부한 오일머니와 보수적인 와하비즘을 토대로 절대왕정 체제를 유지
- 요르단, 쿠웨이트, 바레인, 카타르는 입헌군주제 국가이고 ‘아랍의 봄’ 이후 민주제도를 강화했지만, 사우디에는 아직 헌법과 정당, 의회가 없는 상태
- 이에 비해 1906년 입헌공화제를 도입한 바 있는 이란은 1925년 탄생한 팔레비 왕조 시기에도 입헌공화제를 유지
- 팔레비 왕조의 샤 국왕은 1963년 농지개혁, 문맹퇴치, 여성 참정권 부여 등 강력한 개혁정책을 실시하는 ‘백색혁명’을 일으킴
 - 특히 성직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종교재단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했는데, 훗날 이란혁명 발발의 근본 원인이 됨

- 샤 국왕이 친미 노선을 표방하고 친서구화 정책을 실시하자 성직자와 엘리트층, 상인이 합세하여 1979년 왕정을 타도하고 '이슬람공화국' 수립을 선포
 - 이슬람공화국은 이슬람 교리와 서구식 민주주의를 결합한 실험적인 정치체제
 - 종교 최고지도자가 행정부의 정책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이슬람법에 어긋나는지를 지도·관리하기는 하지만, 민주주의 3권 체제가 정립된 상태
 - 대통령, 국회의원, 전문가회의 의원을 정기적으로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며, 최고지도자도 88명의 무슬림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

□ 1979년은 중동 역사의 분기점이 될 정도로 많은 이벤트가 발생했는데, 이란과 미국/이스라엘/사우디의 적대관계도 이때 시작

- 1979년 2월 이란혁명이 성공하자 중동에서 최대 우방국을 상실한 미국은 3월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조약 체결을 지원
- 11월에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대사관에 침입해 52명을 인질로 붙잡고 444일간 점거했는데, 미국은 초유의 해외공관 테러로 엄청난 충격을 입음
 - 이렇게 과격시위를 벌인 이유는 미국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샤 국왕의 신변 인도를 요구하고 혁명세력을 약화하려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불만 표출 목적
- 12월에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는데, 당시 냉전 상황에서 미국은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한 우방국이 필요
 - 이때 사우디를 위시한 6개 걸프 왕정국가들이 걸프협력회의(GCC)를 창설
 - 이란에서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지켜본 사우디는 이들 혁명 세력이 침입해 정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더욱 보수화
 - 또한 사담 후세인(수니파)이 정권을 잡은 이라크도 이란을 선제 공격하는 방식으로 혁명세력에 맞섰는데, 8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이란에 패배

□ 이란에서는 전쟁에 시달린 국민들이 1989년 이후 보수강경파 대신 중도파와 개혁파 대통령을 잇따라 선출하면서 서방과 화해무드를 조성

- 그러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이란 보수세력이 총결집하여 2005년 초강경파인 아흐마디네자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다시 대립각을 세움
 - 여기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는 후 이란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거부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하자,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UN과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강화

- 2012년 대이란 경제제재가 최고조에 달했는데, 이란 국민은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대선에서 온건파인 로하니를 압도적으로 지지
 - 2013년 8월 집권한 로하니 정부는 공약대로 핵협상을 본격 개시하여 2015년 10월 최종합의에 도달했고, 2016년 1월 공식적으로 제재가 해제
 - 이란 국민들은 2017년 대선에서 다시 로하니를 선출했으나, 높은 실업률과 물가 등으로 경제회복을 실감할 수 없는 서민들이 2017년말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임
 - 국내 경제를 등한시하고 시리아나 예멘 내전을 지원하는 것에 반발했으며, 처음으로 반최고지도자에 대한 피켓도 들고 나와 이란 권력층을 긴장시킴

〈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비교 - 정치체제 비교〉

	사우디아라비아	이란
건국년도	1932 년	1979 년
정치체제	절대왕정국	이슬람공화국
현재 최고 통치자	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 (2015 년 즉위, 82 세)	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(1989 년 선출, 78 세)
주요 지도자	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(2017 년 6 월 책봉, 32 세)	하산 로하니 대통령(69 세) (2013 년 직선제로 선출, 2017 년 연임 성공)

□ 2018년에 건국 86주년을 맞는 사우디와 이슬람혁명 39주년을 맞는 이란 모두 최근 들어 체제 안정성이 약화된 가운데 조만간 최고권력 이양으로 재도약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
- 2015년 1월 즉위한 살만 국왕(82세)은 두 번이나 왕세자를 축출하고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, 국방·내무·경제 등 모든 국정 분야를 관장하게 함
 - 핵협상 타결 후 이란의 급부상을 우려한 사우디 국왕이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만간 차세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(32세)에게 왕위를 이양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음
- 이란에서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전문가회의에 소신껏 후계자를 선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로하니 대통령이 1순위로 물망에 오르고 있음
 - 로하니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고, 국민들이 다시 온건파나 개혁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신정체제가 약화되고 경제중심으로 전환 예상

5. 국방력과 경제력

□ 사우디는 2017년 트럼프가 최초의 해외순방국으로 선정, 방문하자 U\$1,100억 규모의 무기를 구매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

- 사우디는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에 의한 방어벽이 약화돼 불안해했는데,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방위관계도 강화 노력
- 2016년 기준 국방력을 비교해 보면, 국방비 면에서는 사우디가 이란의 9배가 되는 U\$567억을 지출
- 군인 수는 사우디가 23만명에 불과한 반면, 이란은 정규군 53만명 외에 혁명수비대 12만명, 예비군 약 40만명을 확보
 - 사우디는 전투기와 최첨단 무기 중심인 반면, 이란은 재래식 무기에서 강점 보유(33척의 잠수함 등 해군력에서 월등,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성공)
 - 또한 이란은 1980~1988년까지 8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한 실전경험도 보유

〈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비교 - 군사력 비교〉

	국방비	군인수	탱크	다연장로켓	군용기	군함
사우디	U\$56,725 백만	231 천명	1,142 대	322 문	790 대	55 척
이란	U\$6,300 백만	534 천명	1,616 대	1,474 문	477 대	398 척

자료: GlobalFirepower 홈페이지

□ GDP 규모와 인당GDP 등 경제력 면에서는 사우디가 우월하지만, 최근 경제성장률과 재정적자 면에서는 이란이 더 양호

- GDP 규모는 사우디 U\$6,785억, 이란 U\$4,277억으로 사우디가 1.6배 크고, 인당GDP도 사우디 U\$20,139 대비 이란은 U\$5,048에 불과
 - GDP 성장률은 저유가와 이란 제재해제 효과가 상반되게 작용, 사우디는 '16년 1.7%, '17년 0.1%로 침체 반면, 이란은 '16년 12.5%, '17년 3.5%
 - 재정적자 비율은 사우디가 '16년 △17.2%, '17년 △8.6%로 매우 높고, 이란은 '16년 △2.6%, '17년 △2.2%로 상대적으로 낮음
 - 재정수지 균형 위한 유가 수준은 사우디가 '17년 U\$73.1, '18년 U\$70.0인 반면, 이란은 '17년 U\$54.7, '18년 U\$57.2로 전망 (IMF, 2017.10)

□ 에너지 부존자원은 양국이 다 풍부한데, 사우디가 원유 세계 2위, 천연가스 5위고, 이란은 원유 세계 4위, 천연가스 2위 매장 국가

○ 사우디는 세계 최대 석유생산 및 수출국인데, 최근 유가 안정화 위한 감산조치로 하루 생산량을 1,000만 배럴로 제한 중

- 반면, 이란은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증하여 제재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(OPEC 감산 결의 생산한도 380만 배럴/일)

· 생산은 '14년 312만 → '17년 약 380만, 수출은 '14년 111만 → '17년 262만 배럴/일로 증가

○ 이란에는 구리, 철광석, 아연 등 광물자원도 풍부히 매장되어 있으며, 수자원도 풍부해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(농업비중 10%)

- 이란은 자동차, 철강 등 제조업도 발전한 반면, 사우디는 석유의존도가 높음('14년 GDP의 43%, 정부예산 및 수출의 80%)

〈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비교 - 경제력 측면〉

	사우디아라비아	이란
GDP	U\$ 6,785 억('16)	U\$ 4,277 억('16)
인당 GDP	U\$ 20,139('15)	U\$ 5,048('15)
경제성장률	'16 년 1.7%, '17 년 0.1%(F)	'16 년 12.5%, '17 년 3.5%(F)
재정적자비율	'16 년 △17.2%, '17 년 △8.6%(F)	'16 년 △2.6%, '17 년 △2.2%(F)
재정수지균형	U\$ 96.6('16), 73.1('17),	U\$ 58.4('16), 54.7('17),
원유가격	70.0('18) (F)	57.2('18) (F)
주요 부존자원	원유(세계 2 위), 가스(세계 5 위), 철광석, 금, 구리	원유(세계 4 위), 가스(2 위), 아연 (1 위), 구리(9 위), 철광석(12 위)
인구	28.6 백만명('17 추정)	82.0 백만명('17 추정)

자료: CIA World Factbook 홈페이지, IMF(2017.10)

□ 인구는 사우디가 2,860만명인 반면 이란은 8,200만명으로 중동지역 최대 인구 보유

○ 사우디는 실업률 증가로 인구의 33%('14년)에 달하는 외국인을 대거 추방하고 있지만, 사우디인은 대부분 공무원을 선호하여 건설 및 제조업, 서비스업에서 인력난 발생

- 이란은 8년간 전쟁 후 인구가 급증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, 교육수준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높아 노동인력 확보에 문제가 없음

6. 미래 국가전략

□ 2016년 4월 사우디 신임 살만 국왕은 중동에서 ‘모범이 되고 선도하는 국가’를 지향하는 ‘Saudi Vision 2030’을 발표

- ‘활기찬 사회’, ‘번영하는 경제’, ‘진취적인 국가’ 등 3대 영역으로 나누어 미래지향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사회 면에서 개혁 방향을 제시
 - GDP 규모를 세계 19위에서 15위로 올리고, 세계적인 신도시 3개 이상을 건설한다는 계획
 -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며, 8대 육성산업으로 광업금속, 석유화학, 제조업, 도소매업, 관광, 보건의료, 금융, 건설 선정
- 사우디 실세로 부상한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7년 10월, 개념적인 ‘Saudi Vision 2030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핵심 프로젝트 ‘NEOM’을 발표
 - 사우디 북서부 홍해 연안에 서울시의 44배나 되는 규모의 최첨단 신도시를 건설하여 초국가적 도시 및 경제특구로 운영한다는 계획
 - 이를 위해 미래기반 거주지역, 에너지/물, 이동성, 생명공학, 식품, 디지털 기술과학, 첨단제조, 미디어, 엔터테인먼트 등 9개 분야에 집중 투자 예정
 - NEOM은 왕세자의 미래지향적 개혁개방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프로젝트로서 막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관건
 -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보수강경 이슬람(와하비즘)에서 온건 이슬람으로, 사회적으로는 폐쇄적 사회에서 개방적인 사회체제로 전환 선언
 - NEOM에서는 세제 및 노동법 등이 기존 사우디의 법률/제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, 자율적인 사법체계도 적용한다는 방침
 - 최근 왕세자는 1980년대 금지했던 영화관과 콘서트 허용, 여성의 스포츠경기 관람과 운전 허용 등을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변화 모습을 과시
- 그런데 사우디는 2005년 압둘라 국왕이 즉위한 직후에도 ‘2024 Vision’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지만, 10년간의 실행은 성공적이지 못함
 - UNIDO(유엔공업개발기구)와 유수 컨설팅기업 등의 협력하에 20년간 GDP 3배 증대, 산업다각화 가속화, 세계 10대 투자유치국, 6대 경제도시 개발, 제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장기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음
- 이번 ‘Saudi Vision 2030’도 장기비전으로서는 훌륭하게 수립됐으나, 저유가 시대 투자금 확보, 외국인 투자유치, 두바이와 아부다비, 카타르

등과 신도시 개발 경쟁 문제 등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

- 왕세자는 자금확보 위해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ARAMCO의 IPO 단행,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, 왕족/관료/재벌의 부정축재 재산몰수 (U\$1,000억 이상 예상) 등 추진 중

〈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비교 - 장기비전 측면〉

	Saudi Vision 2030	Iran Vision 2025
발표년도	2016 년	2005 년
GDP 목표	세계 15 위 (중동 1 위)	세계 12 위 (중동 1 위)
추진방향	석유의존도 감축, 신도시 개발	석유의존도 감축, 경제/과학/기술 육성
주요 프로젝트	신도시 NEOM 프로젝트	자동차, 철강 등 제조업 육성
종교/사상	온건 이슬람으로 전환, 개혁개방	이슬람 및 혁명 정체성 강조
비고	실세인 무함마드 왕세자 주도로 의욕적 추진 중, 외국인투자 호응	전임 대통령이 수립한 계획으로 새로 운 환경에 맞게 현실적인 개정 필요

□ 한편, 이란은 2005년에 ‘Iran Vision 2025’를 발표했는데, 경제, 과학, 기술분야 육성을 통해 중동 1위, 세계 12위 경제대국화를 목표

- 중동 역내 최고발전 수준의 선진국 진입,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 확보, 국토 균형발전 실현, 산업 다각화와 제조업 육성을 실행 계획으로 제시
- 에너지, 전력, 자동차, 철강 등 주요산업 분야별로 Vision 2025 목표를 수립하였지만 UN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로 거의 실행하지 못함
 - 2016년 제재해제 이후 ‘Iran Vision 2025’ 목표 달성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, 미국이 금융제재 조치를 사실상 풀지 않아 효과가 미미
 - 로하니 대통령은 프랑스·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를 순방하며 투자를 촉구했는데, 수많은 사절단 방문과 MoU 체결 불구 실제 투자실행 사례는 몇 건 없음
 - 철강산업의 경우 2025년까지 조강능력 55백만톤, 수출 20백만톤 등의 목표를 세웠지만 내수 침체, 원료 공급 차질, 낮은 철강가동률, 수출 경쟁력 부족 등으로 달성이 어려울 전망
-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 확보한 ‘이슬람 버전’의 중국을 지향하고 있는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하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
 - ‘서방세계와 독립적이지만 양호한 관계’를 원하는 로하니 대통령은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, 국내에서는 보수강경파인 최고지도자와 혁명수비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

7. 맺음말

-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지역의 라이벌로서 앞으로도 경쟁하며 발전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, 국내외 요인으로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음
 - 사우디는 지난 3년간 최초의 ‘2세 승계’를 위한 정지작업을 해왔지만, 왕실 내 반발 무마와 함께 보수적인 성직자 집단의 저항을 극복해야 함
 - 또한 대부분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동부지역 거주 시아파 국민도 통제 필요
 - 이란은 미국 트럼프 정권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, 최악의 경우에도 중국·러시아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정권유지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
 - 젊은층을 위시한 다수 국민들의 ‘혁명 피로감’ 고조로 이란이 먼저 핵 합의 사항을 위반해 제재를 복원시킬(snapback 조항) 가능성은 낮으며, 사우디에 자극을 받아 개방과 온건노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
- 결론적으로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지역에 위치한 산유국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역사와 정치사회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개별적 접근과 종교를 배제한 비즈니스 관점 이해 필요
 - 중동 1, 2위 시장인 사우디와 이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대안적 성격이 아니라 둘 다 잡아야 하는 중요시장이기 때문에 양국 간 비교 이해를 통해 국가 특성에 맞고 이해충돌이 없는 사업전략을 수립해야 함
 - 양국은 기본적으로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 장기비전을 세우고 신도시 건설과 제조업 육성을 추진 중
 - 이에 더 이상 단순한 건설수주 시장이 아닌, 사업을 지속 영위해야 하는 시장이 되고 있어 사업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단행본]

吉村愼太郎, 「이란 현대사」,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, 2012

유달승, 「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 : 호메이니의 삶을 통해 본 이란 현대사」, 한겨레출판, 2009

유흥태, 「이란의 역사 : 이슬람의 유입에서 이슬람 혁명까지」, 살림출판사, 2008

[보고서]

IMF, "Regional Economic Outlook, Middle East and Central Asia", 2017.10

IMF, "Economic diversification in oil-exporting Arab countries", 2016.4

임정성, "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7가지 오해와 기업진출시 시사점", POSRI 이슈리포트, 2015.2.27

임정성, "핵협상 타결로 빚장 풀리는 이란시장 5대 공략포인트", POSRI 이슈리포트, 2015.4.3

[홈페이지]

CIA World Factbook (<https://www.cia.gov/library/publications/the-world-factbook>)

GlobalFirepower (<https://www.globalfirepower.com/index.asp>)

Saudi Vision 2030 (<http://vision2030.gov.sa>)

Naver 지식백과, 두산백과 사전 (<http://terms.naver.com/>)

[언론]

서정민, "사우디·이란의 치킨게임", [국제칼럼], 경향신문, 2015.12.20

조선일보, "중동 국가별 이슬람 종파 분포도", 2016.1.5

Financial Tribune, "Iran 2025 steel vision reviewed", 2017.1.15

Rafiq A. Tschannen, "The Sunni – Shiah split", The Muslim Times, 2013.1.27

Saeid Golkar, "The next supreme leader could transform Iran", [Opinion], Aljazeera, 2018.1.21